

전주서 오감만족 '인문축제' 열린다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7일간 '전주시 인문주간' 행사 다양한 연령·계층 대상 맞춤형 강좌 31개 프로그램 운영

국가대표 인문학 도시인 전주시가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인문 축제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을 인문주간으로 선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제3회 전주시 인문주간'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

음으로 자체 인문주간을 선포했던 전주시는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일상에서 손쉽게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문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인문학, 시대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66개 전주인문학 365 네트워크 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인문 강좌, 체험, 공연, 전시, 포럼, 대회 등 6개 분야에서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 마련돼 연령, 성별, 국적을 뛰어넘어 인문학으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인문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인문 특강이 진행된다. 특강에는 '치킨은 왜 행복을 말할까?'의 저자 최재원 빅데이터 전문가가 강사로 초청돼 '4차 산업혁명 시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심층적인 강연과 청중과의 대화의 시간이 마련된다.

또 박물관 탐정과 한국 춤 실습, 북아트 만들기 등 인문 체험은 물론 각종 공연·전시, 대회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이번 인문주간 행사는 전주만의 색깔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면서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문학을 누리면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인문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조목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에 참여한 호남중학교 학생들이 숲밭줄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담양군청소년수련원 제공)

정읍 호남중학생들 "환경 중요성 깨달았어요"

1학년 138명 담양청소년수련원서 '조목과 함께하는 힐링캠프' 정읍 호남중학교 학생들이 조목과 함께 하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양군청소년수련원은 정읍 호남중학교(교장 박상렬) 1학년 13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2박3일간의 청소년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목과 함께하는 힐링캠프'는 안전교육, 환경 골든벨과 환경 특강, 팀 데몬스트레이션(바운딩볼·파이프라인·단체줄넘기), 숲밭줄 놀이, 미세먼지 바로알기, 에너지 수렴만들기, 환경 마스크 만들기, 카프라 쌓기, 축제의 밤 등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 지렁이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환경 애니메이션 '지렁이

고창군, 주민소통 강화 '찾아가는 이동군청' 본격 운영

매월 둘째주 화요일 부안면 등 14개 읍·면 순회 고창군이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고창군이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동군청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전문적인 민원 상담을 위해 군수와 함께 주요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민원 해결에 주력한다. 이동군청은 오는 11월 신림면, 12월 성내면, 2019년에는 흥덕면, 심원면, 대산면, 성송면, 해리면, 상하면, 공음면, 무장면, 아산면, 고수면, 고창읍 순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설66주년



군산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기자동차 11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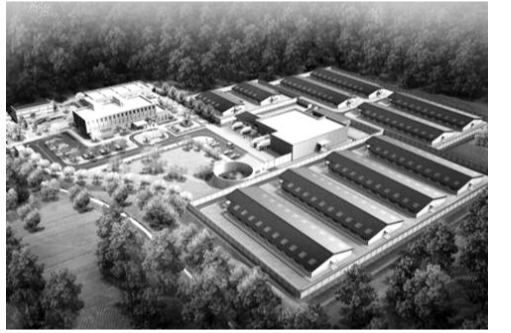
군산시는 지난 11일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에 쓸 전기자동차 11대를 읍·면에 전달했다. (사진) 이에 따라 27개 전체 읍·면·동 전기자동차를 보유하게 됐다. 전기자동차는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며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서비스를 하게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했다"며 "신속한 현장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진도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16억 들여 신축 이전

진도군은 친환경농업의 기반 구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의 신축·이전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내면 본도리 농업기술센터 내 1000㎡ 부지에 신축될 배양센터는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실험실과 배양실, 저온저장고 등이 설치되며, 광합성균 등 5종의 미생물이 생산된다.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배양센터의 연면적이 165㎡에서 495㎡로 확대돼 생산되는 미생물과 액비도 각각 60t으로 늘어 농가의 농약·비료 사용이 10~20%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지역 농가의 미생물 사용량은 2017년 기준 미생물 20t, 액비 40t 정도이며, 친환경농업 확산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미생물 배양센터의 신축으로 양질의 미생물을 많은 농업인들에게 공급이 가능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정읍 영장류지원센터 내달 6일 준공식

미래전략 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영장류지원센터가 정읍에 들어섰다. 14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에 따르면 영장류지원센터(조감도)는 입암면 남매길 351-33 7만2000㎡ 터에 자리잡았다. 연면적 9904㎡ 규모로, 본관동·검역동·사육동 등으로 구성됐다. 사육동의 경우 마카카속 원숭이 최대 3천 마리를 키울 능력을 갖췄다. 'SPF'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 영장류 자원을 대량으로 기를 수 있다. 센터 준공식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영장류는 산업기술유출 보호를 위해 국가적 관리를 받아야 하는 미래전략 생물자원이다. 안정적인 영장류 자원 지원 필요성은 이 때문에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연구현장에서는 매년 1400 마리가량의 영장류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명연 영장류지원센터는 이중 절반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사정상 급매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6834-74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아!!!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광주,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